

딸기 시설재배지의 선충 종류 및 분포

So Deuk Park, Zakauallah Khan, Yong Seub Shin and Il Kweon Yeon

(Seongju Fruit Vegetable Experiment Station, Gyonbuk Provincial ATA)

국내 남부지역의 딸기 시설재배지인 고령, 거창, 남원, 칠곡 및 안동 등의 78개 농가포장의 토양에서 분리된 선충의 종류는 *Aphelenchus arenae*, *Mononchus* sp., *Ditylenchus dipsaci*, *Meloidogyne* sp., *Pratylenchus penetrans*, *Tylenchus* sp. 및 *Aphelenchoides fragariae* 등 7종류인데, 토양 300m³당 선충밀도를 보면 남원지역의 경우 *Tylenchus* sp.의 발생비율이 65.4%, *Ditylenchus*가 23.1%, *Meloidogyne* sp.가 11.5%, *Aphelenchoides fragariae*가 7.7%로, 다른 지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leaf and bud nematode인 *Aphelenchoides fragariae*가 토양 중에서 발견되었다. 거창지역에서의 선충분포는 *Ditylenchus*가 30.7%, *Pratylenchus*와 *Meloidogyne* sp.가 각각 15.4%를 나타냈는데, *Pratylenchus*는 거창에서만 발견되었다. 칠곡은 *Ditylenchus*와 *Meloidogyne* sp.가 71.4%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나, 밀도는 *Ditylenchus*가 141.2마리와 *Meloidogyne* sp.가 3마리로 차이가 났으나, *Meloidogyne* sp.가 밀도는 낮지만, 광범위하게 토양 중에 분포하였다. 고령은 *Meloidogyne* sp.가 66.7%, *Ditylenchus*가 33.3% 발견되었는데, 칠곡과는 다르게 *Meloidogyne* sp.가 156.3마리로 *Ditylenchus*의 85마리 보다 높게 나타났다. 안동은 칠곡과 거창과 동일하게 *Ditylenchus*와 *Meloidogyne* sp. 두 종류의 선충만이 발견되었는데, 선충밀도는 각각 23.1마리, 21마리로 비슷하였으나, 채집된 농가비율은 *Ditylenchus*가 30%로 *Meloidogyne* sp. 보다는 광범위하게 분포하였다. 딸기 식물체에서 분리된 식물 기생성선충은 *Meloidogyne* sp.와 *Aphelenchoides fragariae* 2종류 였는데, leaf and bud nematode인 *Aphelenchoides fragariae*의 발생비율을 보면

거창군의 주당 선충밀도는 990.7마리, 고령군은 984마리로 비슷하였으며, 농가에서의 발생비율을 보면 고령군이 77.8%로 거창군의 66.7%보다 11.1% 높게 나타났다.

*This research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Ministry of Agriculture & Forestry.